

7월 광주 출생아 11개월만에 감소… 전국은 11.1% 늘어

데이터처 ‘2026년 7월 인구동향’

광주 445명 그쳐… 전남광주 누계는 13.1% ↑
자연증가 -945명… 사망자가 출생아 웃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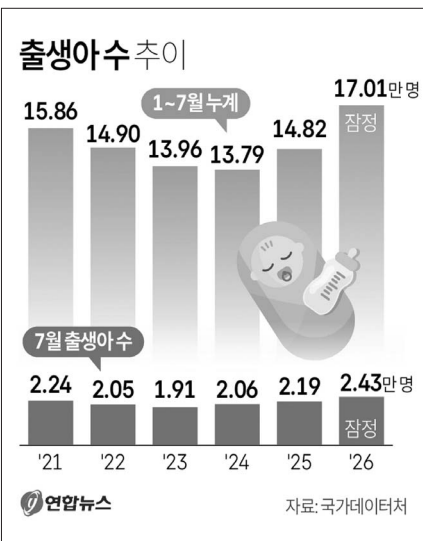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혼인도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됐다.

2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생아 수는 1320명으로 전년 동월 1295명보다 25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

비 증가율은 1.9%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99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04명보다 13.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7월 출생아 수는 445명으로 지난해 7월 564명보다 119명 줄었다. 광주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57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6%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반면 전남은 875명으로 지난해 731명보



다 144명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광주가 4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전남이 5830명으로 15.8% 각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1명(11.1%)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9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0.08명 높아졌다.

특히 연령대별 출산율에서는 3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30~34세 출산율은 8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9명, 35~39세는 61.1명으로 8.6명 상승했다.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아 비중이 63.4%로 전년 동월보다 1.7%p 높아진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각각 0.9%p, 0.8%p 낮아졌다.

혼인도 증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혼인 건수는 1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58건보다 147건(13.9%)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혼인 건수는 81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광주는 7월 혼인 건수가 580건으로 전년 동월 494건보다 86건 증가했지만, 1~7월 누계는 3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전남은 7월 625건으로 전년 동월 564건보다 61건 늘었으며, 1~7월 누계도 44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다만 출생과 혼인 증가에도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졌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망자 수는 2264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944명 많았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출생 445명, 사망 695명으로 자연증가가 -251명이었고, 전남은 출생 875명, 사망 1569명으로 -694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7월 자연증가는 -4647명으로 자연감소가 지속됐다. 다만 지난해 7월 -6228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1581명 줄었다. 올해 1~7월 누계 자연증가는 -3만7664명이다.

이혼은 소폭 감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이혼 건수는 527건으로 전년 동월 491건보다 36건 늘었으며, 1~7월 누계는 33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광주는 7월 24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2% 늘었고, 전남은 287건으로 4.0% 증가했다.

전국 7월 이혼 건수는 776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건(0.8%)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계는 5만169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1조원 돌파…동기 역대 최대

전남광주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1조3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김이 전체 수출을 이끈 가운데 주류와 음료, 커피조제품 등 농산가공품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7억568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억8531만달러의 69.7%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특별시에 올해 목표로 세운 12억달러의 63.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임산물 수출액이 3억482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 수산물은 4억863만달러로 6.1% 늘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1~8월 7억5687만달러… 지난해보다 8.2% 증가
김 3억2031만달러… 주류 등 가공식품도 급성장

농·축·임산물이 46%, 수산물이 54%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의 대표 수출품목인 김은 3억2031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9%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전남광주지역 김 수출액은 전국 김 수출액의 40.9%를 차지했다.

농산가공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주류 수출액은 5104만달러로 44.8% 증가했고, 음료류는 2925만달러로 36.8% 늘었다. 커피조제품은 1953만달러로 168.8% 급증했다. 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16.8% 증가한 2352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1억4468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억3712만

달러, 중국 1억2458만달러, 대만 4899만달러, 러시아 4443만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만 수출액이 65.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25.1%, 중국은 16.7%, 러시아는 16.1% 각각 늘었다. 시·군·구별로는 목포가 1억385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북구 1억1959만달러, 나주 8728만달러, 고흥 8387만달러, 신안 7065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통합특별시는 연말까지 수출상당회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12억달러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 14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지역 수출기업 등 12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연다. 기업과 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한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도 추진한다. 전북 해외 판촉 행사를 열고 프랑스 파리스품박람회(SIAL)에 참가해 신규 바이어와 해외 유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동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수출팀장은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수한 농수산물과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수출 12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역 인구 유출 지속…8월 순유출 1081명

전입 2만4829명·전출 2만5910명… 순이동률 -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순유출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지역의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남광주 전체 순유출 폭도 축소됐다.

2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총전입은 2만4829명, 총전출은 2만5910명으로 집계됐다. 전입보다 전출이 1081명 많아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순유출 규모가 14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328명 줄었다. 순이동률도 지난해 -0.5%에서 올해 -0.4%로 0.1%p 개선됐다. 순이동률은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자 수를 인구로 나눈 값으로, 마이너스일수록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보면 두 지역 모두 순유출을 나타냈다. 광주는 지난달 1만2509명이 전입하고 1만3192명이 전출하면서 683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8월 순유출 699명과 비교하면 16명 감소했다. 다만 순이동률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0.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남은 1만2320명이 전입한 반면 1만

2718명이 전출해 398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8월 순유출 710명보다 312명 줄어든 규모다. 순이동률도 지난해 -0.5%에서 올해 -0.3%로 0.2%p 개선됐다.

전남의 순유출 감소 폭은 광주보다 컸다. 전남에서 지난해보다 순유출이 312명 줄었고 광주는 16명 감소하면서 전남광주 전체 순유출 감소분 328명의 대부분이 전남에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이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도 감소했다. 8월 전국 총이동자는 4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줄었다. 인구 감소 흐름에 주목 거래까지 둔 화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53년 만에 가장 적었다. 1973년 8월(42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입과 전출을 합친 전체 이동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지난해보다 순유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8월 총전입은 2만4829명, 총전출은 2만59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공표된 월간 인구이동 자료다. 국가데이터처는 시·도·시군별 비교를 위해 올해 12월분까지 광주·전남 자료를 하위 항목으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

농협 광주본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시동’

기업금융 실무자 50여명 대상 AI 반도체 연수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금융 실무진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본부 2층 대강당에서 금융센터 RM(기업금융전담역)과 영업점 기업예산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AI시대 반도체 산업의 이해와 금융실무 시사점’을 주제로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에 비롯해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발생할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금융 담당자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GIST R&D 혁신기획센터·정상호 박사가 ‘금융인이 알아야 할 AI시대의 반도체 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상호 박사는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국내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설명하고 팹(Fab)을 비롯해 소부장과 후공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2부에서는 NH농협은행 여신심사

부 경공임사팀 정근화 실사역이 ‘반도체 관련 기업 여신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RM 인력을 기반으로 인프라 조성 및 소부장 기업 유치, 정주 여건 마련 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 영업점 가운데 1개소를 ‘호남반도체금융센터’(가칭)로 격상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지역 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만큼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
농협은행, 31일까지 2차 특판

NH농협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출시한 예금 상품의 2차 특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 2차 특판을 오는 31일까지 10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차 특판은 출시 8일 만에 한도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상품의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21일 기준 기본금리 연 3.35%에 우대금리 0.30%p(p)를 더해 최고 연 3.65%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행정통합 응원 특별금리 △전남광주 통합 응원 댓글 달기 △상품 서비스 안내 동의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0.10%p씩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상품 판매액의 0.10%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제단 3층 최상준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인종환지원센터, 광주시지리지원전담기관,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수요 연계’를 통한 광주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소상공인 음식상품, 복지기관 판로 확보

경제일자리재단, 3곳과 밀키트 141개 우선 공급 협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제단 3층 최상준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인종환지원센터, 광주시지리지원전담기관,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수요 연계’를 통한 광주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브랜드 육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음식상품을 복지기관의 실제 수요와 연결해 공공·복지 분야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밀키트 141개를 우선 제공한다. 복지기관 이용자들은 밀키트를 통해 지역 음식점의 대표 메뉴를 직접 조리해 맛볼 수 있다.

제공 상품에는 지역 명장이 참여한 스테이크와 직화요징어볶음 등 광주 소상공인이 생산한 음식상품이 포함됐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기관, 디지털전환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프랜차이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지역 소상공인 상품으로 공급하면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이 공공·복지 분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 컨설팅, 디지털전환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프랜차이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